

2007 금융기관장 인터뷰 ⑧ 포천시산림조합 조합장 남궁 중

산주를 위한 대리경영사업 100% 목표로 추진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Green Forest, Green Future) 도약



“취임 후 곧바로 사무실 1~3층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다양한 사업전개를 통해 포천시 산림조합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2005년9월8일자 취임해 2009년9월7일까지 4년의 임기를 시작한 포천시산림조합 남궁 중(53·사진)조합장은 1979년4월9일 임업기술지도원으로 산림계에 입문하여 포천산림정책의 전문가로 산림조합을 이끌고 있다.

남궁 조합장이 취임 후 실시한 사업으로 특기할만한 것은 산주(山主)를 위한 대리경영사업이다. 산주와 위탁계약을 통해 조립 및 육림 사업을 추진하는 이 사업의 목표는 관내 모든 산주를 대상으

로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합원이 아니라도 산림조합에 예금과 대출, 나무를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연말에 이용과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산사랑 장학금과 푸르미 장학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산사랑 장학금은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푸르미 장학금은 산주를 대상으로 연간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산사랑축제를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관내 3천여명의 조합원들의 뜻과 정성을 모아 실시해 큰 효과를 거두었다. 포천시 산림조합은 임업관련 장비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기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연간 120리터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포천시 관내 산림면적은 5만2천891ha이며 이중 국유림은 1만2천559ha, 공유림은 4천317ha, 사유림은 3만8천15ha 규모다. 임상별 산림현황은 침엽수 2만5천513ha, 활엽수 1만3천640ha, 혼효림 1만3천468ha, 기타 2천270ha다.

포천시 산림조합의 조합원중 산림소유자는 1천477명, 산림경영자는 1천466명 모두 2천943명이며 산림경영자는 임산물생산 가공 판매자가 10명, 종묘, 균류, 조경목 생산 판매자가 8명, 산림경영

종사자가 1천130명, 공동산림경영자(산림계원 등)가 318명 등이다. 포천시산림조합의 신용사업은 상호금융 활성화와 위원을 위촉해 예수금 147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의 실적을 거양했으며 2006년도에 출자배당금 6.0% 배당했으며 예금 및 대출 또한 산림 사업, 대리경영 계약 체결한 조합원에 한해 2천만원을 추가로 이용과 배당하기도 했다.

특히 2007년도에는 조합원 1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해 올 목표인 예수금 300억원 달성을 위해 노력을 나갈 계획이다.

포천시 산림조합은 5월18일 창립 45주년을 맞이했다. 남궁 조합장은 창립45주년 기념식에서 “지난간 국토 녹화사업에 성공했듯이 다가오는 45년을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소득경영을 축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목표만이 산림에 대한 미래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궁 조합장은 “산주 중심의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산림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 없이는 우리나라의 산림은 미래가 없다”며 “단순하게 숲이 잘 가꾸어져서 보기 좋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 보았는가 반문하며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산림조합은 창립 45주년

을 맞아 조직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 NEW CI를 개발하여도 임했으며 21세기 시대적 변화에 걸 맞는 새로운 비전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Green Forest, Green Future)’로의 도약을 선포했다.

현재 포천시 산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예산은 다음과 같다.

- ▶영월국유림 사방범(1공구) 5천982만4천651원
- ▶영월국유림 사방범(2공구) 1억669만4천912원
- ▶산지사방(06년이월) 2천29만4천301원
- ▶직주리유역관리 6억5천278만1천5원
- ▶춘천집중호우(3.4공구) 3억9천119만9천906원
- ▶산사태 복구(도유림) 1억931만1천원
- ▶학교숲 조성(송우중) 7천480만원
- ▶학교숲 조성(일동중) 7천500만원
- ▶학교숲 조성(송우중) 7천3천만원
- ▶가로수 식재 6천83만1천630원
- ▶가산면 우림리 소공림 조성공사 1억150만원
- ▶지동마을산촌개발사업(1차) 3억4천643만6천176원
- ▶지동마을산촌개발사업(2차) 5억2천857만3천원
- ▶포천시대행조립사업 4억4천294만1천원
- ▶공익조립 5천820만원
- ▶산림청기법조립지 관리사업 4천100만원
- ▶국립수목원 재산총명고사목제거 2억767만원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3천270만원
- ▶소나무류 재산총명 방제 456만원
- ▶사방범 2개 3억원
- ▶육림 4억5천만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30 와이케이인더스트리

쾌적한 삶을 연출하는 인테리어 소품생산



대표 안광섭

현대적 감각과 클래식한 분위기를 더한 공간 연출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고객을 감동시키고 있는 와이케이인더스트리(포천시 내촌면 진곡리 36번지 대표 안광섭).

고객들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와이케이인더스트리는 가구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디자인을 추구하며 설립 이래 지금까지 최상의 제품만을 생산한다는 고집아래 주문·시공·설치·철거한 A/S까지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연구·노력하며 정성을 향하고 있다.

1988년 서울 만수동에서 영공산업으로 출발해 마석 가구단지를 거쳐 2004년 위 곳에 정착해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경력과 탄탄한 노하우를 가지고 우수한 제품 만들기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빠르게 변해 가는 가구산업과 소비자의 눈높이에 발맞춰 모든 공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세계화 시대에 합류하기 위해 오랜 기간 사용해왔던 영공산업 회사명도 지금의 상호로 변경한 것이다.

안 대표는 “고객들의 의견에 100% 수렴하고 있다.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 고객 대부분 도면작업을 함께 하고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실측과정을 거쳐 설계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하자 없는 시공을 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서비스 정신을 앞세워 시공 후 2년 동안 A/S를 보장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와이케이인더스트리는 원자재를 수입해 온 목재와 대상목재에서, 공정과정에서 사용되는 비닐(시트지)은 엘지, 한화, KCC에서 공급받고 있다.

와이케이인더스트리는 현재 약 15개의 협력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납품업체로는 삼성, 에스케이, 대우, 한화, GS, 우방건설 등 국내 굴지 업체들이다.

안 대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월례회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특히 목재

하자 없는 시공 · 2년 동안 철저한 A/S 미래형 제품 생산에 연구와 노력 올인

블락이장, 신발장, 거실장, 부엌가구 등은 예전부터 생활공간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리를 굳혀온 지 오래다.

세련된 디자인과 아름다운 색상으로 개성 있는 실내공간을 연출해주는 인테리어 소품이야말로 우리에게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에 힘입어 와이케이인더스트리는 사무실이나 아파트·개인주택 용도에 맞는 맞춤형 시공과 전문화된 기술력을 앞세워 고객의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원단)재단 시나 지게차 운행 시에는 더욱 더 조심할 것을 직원들에게 수시로 당부한다. 각 파트별 주어진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언제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직원들과의 화합은 주로 회사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현재 와이케이인더스트리는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형 제품생산에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조달청 등록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문의) T. 031-534-6854 F. 031-534-6882 3536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현대적 감각과 클래식한 분위기를 더한 공간연출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고객을 감동시키고 있는 와이케이인더스트리

재테크 ⑧

맞벌이 부부 : 100+100=200이 아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직장인 10명 중 6명이 맞벌이다. 육아를 위해 가정에 있던 40대 주부들도 자녀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남편의 직업이 불안하기 때문에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맞벌이 가정은 ‘들이 버는데도 돈이 안 모인다’고 말한다. 주위에서는 수입이 두 배라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늘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몸은 지치고, 더욱이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 육아문제도 심각하다.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문제는 맞벌이를 해서 생긴 플러스 소득 중 80%가 교육비와 외식 등 문화 생활비로 다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정은 외식비가 외벌이 보다 39.5% 많고, 교육비도 35.8% 더 쓰고 있다고 한다. 이 밖에 부모님 용돈, 부부 용돈, 자기 개발비 등 여러 가지 맞벌이

대체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고 있다. 두 사람이 번다는 생각이 안나면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만난 40대 초반의 K씨도 답답한 마음을 내비치면서 어떻게 해야 애들 대학까지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집도 늘리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겠느냐며 방법을 물었다.

현재 월수입은 350만원, 중 3학년과 초등 6학년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이런 맞벌이 가정에 필요한 주요 재테크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인생설계표를 짜고 필요한 자금을 구체화한다. 라이프 싸이클을 살펴보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아이들의 대학 입학 시기, 부부의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알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한사람의 수입은 저축해야 한다.

돈은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똑한 맘으로 한사람의 수입은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 자녀들의 용돈 관리도 철저하고 집안 대소사의 불필요한 책임도 과하게 부담해서는 안된다. 쉽게 하게 되는 외식비도 반으로 줄여보자. 그리고 최소 3개월에 한번씩 가계를 결산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가족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3. 재테크 전문가와 친하게 지내라. 부부가 직장생활로 바쁘다 보면 재테크 정보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 정보가 돈인 세상이다. 가정재무 주치의인 재무컨설턴트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이 좋다. 단순한 은행 예적금이 아닌 적립식 펀드나 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하자.

4. 수입을 받고 지니친 대출을 받지 않는다.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 대출 등 맞벌이 부부는 수입을 받고 미리 빚을 내서 쓰기가 쉽다. 대출금 갚기에 급급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소리 없이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5. 가정 위험대비는 보험으로. 살펴보면 예기치 않은 질병과 재난이 있을 수 있다. 단 한번의 불상사라도 멀쩡하던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 보험을 준비하여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자.

백지장도 맞들면 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히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가정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와 투자 위험대비가 제대로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무료상담
한경희 컨설턴트
011-9030-7917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산업안전사고 예방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케이지 낙하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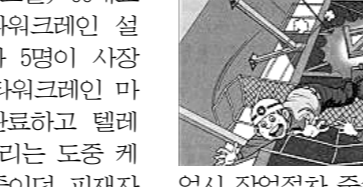
▶재해발생개요 2006년 09월 09일(09:00) 00대교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설치업체 소속 근로자 5명이 사강교 주탑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마스트 연장작업을 완료하고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내리는 도중 케이지가 낙하, 작업중이던 피재자 2명이 추락(77m)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1. 텔레스코핑 케이지 하강작업 시의 작업절차 미준수

• 트레버스 슈와 마스트 웹브 위의 안착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

• 사고 직전의 안착상태는 트레버스 슈와 12번 마스트 웹브 세로폭 40mm중에서 약 1/2정도만 평면접촉으로 걸친 상태에서 유방실린더 램을 축소 조작함으로 상부 발판에 위치한 작업자와 함께 케이지가 마스트 웹브 위에서 미끄러진 현상 발생사항.

▶중증재해 예방대책 가. 텔레스코핑 케이지 하강 작



업시 작업절차 준수

• 텔레스코핑 하강 작업시 유방실린더에 부착된 클라이밍 트레버스 슈를 마스트 웹브 위에 안착시킨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확히 안착되도록 확인하는 등 작업절차를 철저히 준수.

나. 트레버스 슈와 마스트 웹브의 형상 개선

• 기존의 트레버스 슈와 마스트 웹브의 평면(Flat)형상은 안착상태의 불량으로 인한 케이지 낙하사고 재발 우려가 있으므로 트레버스 슈의 이탈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트레버스 슈와 웹브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개선.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장애편입금과 유족연금의 급여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

20년 이상 가입 경우 유족연금은 연금액의 60%

1급 장애연금은 원천노령연금액의 100% 지급

국민연금 종류는 크게 4가지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일시금이 그것이다.

이 중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것. 또 사망자가 사망할 당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던 자에만 유족이 될 수 있다.

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가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출가할 때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나 손자녀가 18살이 됐을 때 유족연

금에 소멸한다. 여기서 유족이란 배우자(남편의 경우는 60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18세 미만의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의 순서 중 최우선 순위자를 가리킨다.

유족연금액은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에 기초해 산정한 기본연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다.

국민연금 종류는 크게 4가지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일시금이 그것이다.

국민연금 종류는 크게 4가지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일시금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가입 중 평균 소득이 138만원인 가입자가 장애 1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월 연금 수령액은 43만 원이 된다.

원천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연금받는 나이(60~65세)에 도달하면 받게 되는 연금. 소득월액의 30~45% 수준을 받게 되며, 가입기간에 정비례해서 액수가 높아진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부 031-544-8700